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해설

[1~3] 독서론

모든 문제가 너무 쉬워서 생략.

이런 짧은 지문의 형식은 6월, 9월에 나왔으니 수능에도 나올 듯

[4~9] (가) 광고의 개념 및 독점적 지위 & (나)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나)를 읽고 나머지 문제를 풀었어야 함

4. (가)만 읽고 풀 수 있다.)

- 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X
- ② 확실히 정답. (가)만 읽고 풀었다면 나머지 선지를 볼 필요가 없음
- ③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 X
- ④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 X
- ⑤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 X

5. ((가)만 읽고 풀 수 있다.)

- ①, ②는 확실히 적절하다.
- ③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렸다.
- ④, ⑤도 확실히 적절하다

6.

- ① 적절하다.
- ②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즉 한계 소비 성향과 소득 수준은 비례 관계.
- ③, ④, ⑤ 또한 적절하다.

7. ((가)만 읽고 ②, ③, ④번을 제낄 수 있다.)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경쟁을 제한한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 틀렸다. 오히려 올리기 쉽다. 그리고 경쟁이 촉진되면 구매자는 비싼 가격에 사지 않는다.
- ③ 경쟁 제한과 판매자 수와는 관련이 없다. 또 경쟁이 촉진되면 신규 판매자가 오히려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진다.
- ④ 광고의 차별성을 알렸기에 경쟁이 제한되는 것이다.
- ⑤ 경쟁 촉진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증가한다.

8.

- ①, ② 적절하다.
- ③ (가)의 2문단에서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면 그 이윤이 지속되지 않고 그 이윤에 이끌려 신규 판매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한다. 또 (나)의 1문단에서 판매자들은 가격을 더욱 고려해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판매자가 많아질수록 판매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약해진다고 한다. 즉 ‘갭’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신규 판매자의 수가 증가해 판매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약해지고 판매자 간 경쟁은 강화된다.
- ④, ⑤ 또한 적절하다.

9. (이런 문제는 끼워 넣어 보면 답이 나온다. 해설 생략)

[10~13] 반자유주의 논증과 그에 대한 비판

비문학은 2~3문단을 읽고 내용 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를 읽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문단 잘라읽기”를 해야 한다.

이 지문은 충분히 고난도로 출제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힘을 뺀 모습이 보인다.

10. (2문단까지 읽고 해결이 가능했다.)

- ①, ②, ③, ④ 1문단에 있다.
- ⑤ 2문단에서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된다고 가정하면서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완전히 틀린 선지.

11. (역접 접속사를 제대로 체크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 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한다는 뜻이다.
-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고 해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말이 없다. 그 선택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 ③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한다.
- ④ 4문단에서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다.
- ⑤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도 가질 수도 있다.

12.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2번 문제를 참고하라.)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문장은 3문단에서 시작해서 4~5문단의 내용의 결론이다. ⑤번 선지를 제외한 내용들은 여기에 나온 내용들과 관련이 없거나,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⑤번이 된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인 칼로릭 지문의 32번 문제가 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므로 꼭 한 번 다시 보길 바란다.

13. (보기의 내용이 ‘선결정’인 상황만 알면 쉬운 문제)

- ① 선결정된 상황에서 선결정 가정을 거부한다? 오답
- ② 선결정된 상황이지 무작위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 ③ 입증되지 않으면 선결정 가정이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 ④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의 결론을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정답
- ⑤ 완전히 오답

[14~17] 메타버스 및 HMD

굉장히 쉽게 써준 기술 지문. 평소 기술에 약했어도 이 지문은 쉽게 풀었을 것이다.

14.

- ① 1문단에 감각 전달 장치, 3문단에 공간 이동 장치에 대한 내용에 있다.
- ② 3문단에 사용자의 움직임은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다.
- ③ 2문단에 HMD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나와있다.
- ④ 2문단에서 아바타가 느끼는 것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나와있다.
- ⑤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 전달하는 것이지, 상호 간에 감각을 주고 받는다는 말은 없다. 오답

15.

-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한다.
- ②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장면이 변경된다.
- ③ 옳은 선지
-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움직이는 것이다.
- ⑤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

16.

- ① 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 중 하나이고,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센서라고 지문에 나와 있다.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린 설명
- ②, ③, ④, ⑤는 여러분들이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략.

17. 해설 생략

[18~21] 작자 미상, 「배비장전」 (EBS 연계)

18.

- ①, ②, ③, ⑤는 옳은 설명
- ④번 선지를 의외로 많이 어려워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인’은 ‘사공’의 배를 혼자 빌려 탄 VIP이다. 이 VIP인 것과,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은 연결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오답인 것이다. 서로 연결될 수 없는 말들을 붙여 놓아서 오답을 만든 선지.

19. 해설 생략

20.

③번 선지를 제외하고는 명백한 오답이다. 생략

21.

④번에서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은 서울로 가는 배가 없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상황이지,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①, ②, ③, ⑤는 생략

[22~27]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같은 내용이지만 형식이 다른 두 지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전우치 전」에 이어 또 나온 형식의 문제.

22.

① 윤 노인의 며느리의 말을 간접 인용해 윤 노인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②, ③, ④, ⑤는 생략

23.

① 우연히 만나게 아니고 ‘윤 노인’이 구름이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
② 구름과 물빛, 매운 갯냄새 등을 지각하며 그들의 경험을 환기한다.
③ 대처 방법이 서로 다르단 서술은 나오지 않는다.
④ 예측이 정확히 맞았다.
⑤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24.

⑤ ‘돛배’는 희망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지, 희망의 실현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는 생략

25.

① 완전히 옳은 설명.
②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으로 볼 수 없다.
③ ‘해순’은 ‘순임’과 같이 절을 하지, 멈추지 않는다.

- ④ 다른 아낙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은 없다.
- ⑤ ‘윤 노인’ 혼자의 판단으로 집을 나가지, ‘순임’이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다.

26.

- ②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각각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그 사건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다급함, 당황스러움 등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지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①, ③, ④, ⑤는 생략

27.

- ④ 당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한 것은 맞지만,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①, ②, ③, ⑤는 생략

[28~31] 오장환, 「종자」 (EBS 연계)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를 해석하지 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글 본문에 사진으로 따로 첨부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시는 문장 단위로 읽으면서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옆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대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런데~~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뇌수=이야기 심장=노래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A]
[B]

글씨가 악필인 건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래도 보는 데에는 지장 없을 것이다.

같은 말을 계속 이어주고, 네모와 세모를 통해 긍정 및 부정을 찾았다. 시의 주제는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시는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주제는 어차피 하나다.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이렇게 해석해야만 한다.

28.

- ①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옳은 설명. 신주들을 평소에는 대머리에 곰팡이 낄 정도로 방치하면서,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진다고 하며 풍자하고 있다.
- ③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아무런 재주를 물려받지 못했다고 풍자하고 있지 존중하지 않는다.
- ⑤ 종가에 대한 선망이 아닌 비판이다.

29.

- ① '노래'와 '가사'의 분리가 가져온 결과이다.
- ② '노래'와 '이야기'가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이다.
- ③ 시인의 '말'에 '심장의 박동'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심장의 박동'은 첫 번째 줄에서 '노래'라고 한다. 즉 시인의 '말'에 '노래'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 ④ 적절한 선지
- ⑤ [A]는 '이야기'가 도입되지 못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 [B]와 그 아래 부분을 보면 '노래'가 내 '걱정의 상처'를 덧나게 해 그 처방은 '이야기'라고 한다. '노래'의 회복이 가진 의의라는 설명은 완전히 틀린 설명.

30.

- ⑤ (가)의 '지금도'는 '종가'의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①, ②, ③, ④는 생략

31.

- ③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

된 결과가 아닌, 노래와 이야기가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는 시의 4~5행에서 볼 수 있다. ①, ②, ④, ⑤는 생략

[32~34] 허난설헌, 「규원가」 (EBS 연계)&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32.

④ 둘 다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화자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⑤는 생략

33.

- ① 흐릿한 기억이라고 볼 수 없다. 입을 만난 것이 꿈같다고 하고 있다.
- ② 현실에서 입을 만날 수 없으니 꿈에서라도 만나고 하고 싶다고 한다. 옳다.
- ③ ㉠은 입을 만났을 때의 감정이고, ㉡은 입과의 재회를 바라는 상황이다.
- ④ ㉠은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은 옳지만, ㉡에서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재회는 아니다.
- ⑤ ㉠을 인연의 우연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은 재회의 필연성이라고 볼 수 없다.

34.

- ① 화자 본인의 슬픔을 실솔이 상에 우는 장면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 ②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거문고로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지만, 지금 있는 부용장이 적막해 누구의 귀에 들리겠느냐는 뜻이다. 즉 화자가 외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옳은 설명
- ④ ‘삼춘화류’, 즉 봄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봐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해 슬픔과 거리를 두고 있는 시다.

